

## 교직과정을 이수한 교육대학원생의 내러티브 탐색 - 지구과학교육 전공을 중심으로 -

연유상 · 정덕호 · 이철민\*

전북대학교 과학교육학부/과학교육연구소,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Inquiry into the Narratives of Graduate Students of Education who Have Completed Teaching Profession - With a Focus on Earth Science Education Major -**

**Yu Sang Yeon, Duk Ho Chung, and Chul Min Lee\***

Division of Science Education/Science Education Institut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buk 54896,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nxiety arising from the budgetary and mental problems of graduate school students. Three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Earth science examined conflict situations by using a narrative inquiry technique. First, participants become psychologically unstable due to a lack of knowledge in the field of Earth science, lack of mentors, lack of information related to academic schedules, late start compared to others, financial difficulties, and discrimination in the scholarship system. Second, participants felt hope from the perception that their lives are valuable, that they can change students for the better, and that they are developing themselves. Third, with their hope, the study participants bore the previously mentioned inferior situation mentioned above. They are, however, torn between becoming secondary school teachers and attempting to reroute their career path due to certain circumstan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there should be improvements from graduate school management based on collecting and scrutinizing the demands of students in the to fulfill their needs. Second, providing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students who have problems overcoming their anxieties. This study expects graduate schools to not only emphasize training of incumbent teachers, but also suggest ways that can satisfy students to make better learning environment for all its members.

**Keywords:** narrative inquiry, earth scie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eaching profession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교육대학원생의 심리적, 재정적 어려움으로부터 파생된 불안과 이들이 가진 교직에 대한 희망 사이의 갈등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구과학교육 전공 교육대학원생 3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해 내러티브 탐구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전공 지식의 부족, 멘토의 부족, 늦은 출발, 재정적 문제와 차별, 정보의 부족 등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삶은 가치가 있다는 인식, 학생들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 자신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희망을 얻는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진 희망 요소에 의해 현 상황을 감내하고 있지만 어려움으로부터 파생된 불안과 교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희망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교육대학원생의 수요를 바탕으로 정보의 수집 및 분석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

\*Corresponding author: earthlee@jbnu.ac.kr  
Tel: +82-63-270-2801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교육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향후 현시점의 교육대학원이 현직 교사의 재양성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구성원 모두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더 나은 교육대학원의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

주요어: 내러티브 탐구, 지구과학교육,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 내러티브를 시작하며

우리나라에서 특수대학원은 일반 성인이나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상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Lee, 2004). 교육대학원은 이런 특수대학원에 해당하며, 교육대학원도 현직 교사들의 교직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재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직 교사들은 교육대학원에서 전문적인 학술연구를 하거나 최신 동향의 교과 내용을 학습하여 그들의 교직 역량을 강화한다. 그런데 교육대학원은 다른 특수대학원과는 달리 현직 교사들의 재교육 과정 외에도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직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범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놓쳤거나 학부과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사 학위 취득자에게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통해 교원 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부과정에서 교사 양성과정은 4년(8학기)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고, 교육대학원에서 교사 양성과정은 학부과정보다 짧은 2년 6개월(5학기)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늦은 나이라도 교사가 되고 싶은 학사 학위 취득자는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선택하기도 한다(Cho and Kim, 2017).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선호하는 사회구성원들이 증가하면서 청년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에 진학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과 맞물리면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교원 수를 감축하는 정부의 정책 변화 때문에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배출하는 예비교원의 수가 현재 필요한 교사수요보다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Ryu, 2012). 이는 교사가 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실에 지친 예비교사들은 눈을 돌려 교사가 되는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교직과정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의 특성상 교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준비하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교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의 시선은 그들은 특이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Kim, 2009).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예비교사들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으며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여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원생들은 저마다 나름의 동기를 가지고 교육대학원에 입학했으나 사범대학 학부생들과 다른 상황에 자신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들은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다. 또 이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대학원생들은 결국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는 경우가 잦으며, 자신에게 과도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몰입하여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기도 한다(Park and Kim, 2017). 이런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들은 교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중도에 포기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한다(Ham, 2017).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무관심하며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Lee and Cheon, 2008). 특히 지구과학교육 전공 영역에서는 그 학문적 특성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지구과학’은 지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자연계 시스템들을 연구하는 분야로써, 그 구성은 크게 지질학, 해양학, 대기과학, 천문학 등으로 구분되며 ‘지구과학’ 교과 역시 이를 반영하여 구성된다. 그런데 지구과학을 구성하는 각 하위분야의 학문들이 규모와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해나가면서 현재 대학에서는 대부분 독립적인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학부과정에서 지구과학 영역에 속하는 학문 중 하나를 전공했던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지구과학교육 전공자들은 나머지 학문에 깊이 있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에 진학 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부생들이 교사를 준비하며 겪는 어려움, 진로 갈등, 대학 생활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연구(Kim, 2003; Yu, 2009; Yi, 2010),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교육대학원생들의 시간 투자와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Cho and Kim, 2017) 등이 있지만, 이 연구들은 학부생들에 관한 연구이거나 지구과학교육과 거리가 먼 전공자들에 대한 양적연구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교원양성 연구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교육대학원생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교육대학원의 발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해당 전공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거나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과학교육 전공 교직과정을 이수한 교육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질적 접근, 즉 내러티브적 탐구기법을 활용하여 이들이 교사를 준비하며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삶과 경험에 들어가 내러티브 접근을 통해 내, 외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 요소들이 본인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생겨난 그들의 걱정과 불안을 분석하여 교사준비 과정에 수반되는 다양한 갈등과 요구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지구과학교육 전공 교육대학원생들이 느끼는 불안 요소는 무엇인가?

둘째,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지구과학교육 전공 교육대학원생들은 불안 요소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지구과학 교원자격증(2급 정교사)을 취득할 목적으로 교육대학원 지구과학교육 전공(이하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으로 기술함)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인 1인(예비교사 A), 졸업한 예비교사 1인(예비교사 B), 졸업 후 지구과학교사로 임용된 1인(지구과학교사 C)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에 관한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이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지구과학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에 지원하였지만 진학하는 데 실패하여 자연대학의 유사학과로 진학하였다. 예비교사 A는 수도권에 소재한 종합대학 환경학과를 졸업하면서 '환경' 교과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군 복무를 마치고 지구과학교사가 되고자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에 입학하였다. 현재 그는 지구과학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시험 준비, 졸업을 위한 학위 논문 준비, 생활비 마련을 위한 수업 조교 등을

**Table 1.** the information of participants on their sex, be in/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and their major in undergraduate course

연구 참여자	성별	재학 여부	학부과정 전공
A	남	재학 중	환경학과
B	남	졸업	해양학과
C	여	졸업	지구환경과학과

병행하고 있는 재학생이다. 예비교사 B는 수도권에 소재한 종합대학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지구과학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통해 지구과학 교원 자격을 취득한 임용 준비생이다. 그는 학부과정에서 교직이수를 통해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소속 학교에서 교직이수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 현재 예비교사 B는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졸업하였고,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흔들리는 자신을 다잡기 위해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다. 교사 C는 전북 소재 국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를 졸업하면서 '환경' 교과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자교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통해 지구과학 교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중학교 과학교사로 재직 중이다.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방법, 자료의 사후 관리, 연구 참여자의 신분 보호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설명하였다.

### 연구 절차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탐색을 위해 면담에 활용할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먼저 연구자들은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및 불안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지의 내용을 분야별로, 시간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Lee, 2015; Cho and Kim, 2017; Ham, 2017). 즉 질문지의 구성은 연구 대상자들이 '교육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입학한 후', '졸업 후 합격까지', '합격 후'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육대학원을 선택한 이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걱정되었던 점', '교육대학원생으로서 바라는 점'과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Table 2). 이후 연구자들은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진행하여 각각의 내러티브를 질문별로 한곳에 모아 유형 분류를 완료하고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이 과정

**Table 2.** the questions provided to the participants for investigation their narratives

시기	영역	질문 내용
입학 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본인의 환경을 알려주세요.</li> <li>•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통해 새 출발을 결심한 동기는 무엇인가요?</li> <li>• 전국의 교육대학원 중에서 해당 교육대학원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li> </ul>
	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교육 4개의 전공 중에서 지구과학교육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li> <li>• 입학하기 전 생각했던 지구과학교육과의 모습을 말씀해주세요.</li> <li>•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면서 어떤 심정이 들었나요?</li> <li>• 학부 전공이 교사라는 꿈을 이루려는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대학원 진학을 준비할 때 경제적, 시간적, 학문적으로 부담되었던 요소는 무엇인가요?</li> </ul>
입학 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도전에 대해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시선은 어땠는가요?</li> <li>• 입학 후의 생활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었나요?</li> <li>• 교원 임용시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li> <li>• 교육대학원에서 수업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li> <li>• 교육대학원에서 인간관계 및 행정적 측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li> </ul>
	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 후 교육대학원생으로서 기대되거나 걱정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li> <li>• 입학 후 임용시험을 준비하는데 내적/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li> <li>• 자신의 성격이 지구과학교육 전공과 잘 맞았나요?</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과의 도움 및 지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li> <li>• 임용시험에 필요한 정보나 지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 받았나요?</li> </ul>
졸업 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 후의 환경은 학부생들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랐나요?</li> <li>• 졸업 후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li> </ul>
	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 후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나요? 있었다면 그 이유와 극복한 경험을 말해주세요.</li> <li>• 교사라는 꿈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인가요?</li> </ul>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 후 학교에서 제공하는 세미나 및 특강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li> </ul>
합격 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교단에 섰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이를 바탕으로 본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혹은 미래의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li> <li>• 교사라는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교육대학원의 역할은 어떻다고 느끼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교사라는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li> </ul>
	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대학원에게 교육대학원생으로서 바라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li> </ul>

에서 과학교육 전공 교수 1인과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2명의 연구자, 그리고 석사과정 1인이 내용 분류와 내러티브의 적합성을 토의하고 검토하였다 (Chung et al., 2020). 이렇게 개발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탐색을 위해 기존의 5단계의 방식에서 많은 연구자가 중복되는 부분들을 수정한 3단계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즉,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현장에 머물며 구성된 삼차원적 공간으로 들어가고, 연구 참여자와 함께 현장 텍스트를 작성한 후 연구자가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Kwon and Cho, 2013). 그리고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과 내러티브 탐구를 진행하기 위해 그들의 학부 시절과 대학원 재학 시기, 그리고 현재까지의 연대기를 시간, 사회적 관계, 장소를 모두 포괄하는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을 통해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분석하였다.

###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본 연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먼저 연구 참여자들에게 직접 면담이 이루어지기 약 2주 전에 연구 취지와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안내사항 및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그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작성해보도록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궁금해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그들의 이해를 도왔다. 다만 ‘합격 후’에 속해있는 질문은 중학교 과학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 C’에게만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6월부터 직접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은 연구자들이 연구 참여자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었으며, 면담 시간은 약 2시간 내외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들은 면담 내용을 모두 녹음하였고, 이를 텍스트로 전사(transcription)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후 자료를 분석하는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구자들은 E-mail 및 전화 통화를 통해 면담 내용을 보충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Kim et al., 2018). 먼저 연구자들은 전사된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질문에 부합하는 내러티브를 연구 참여자별로 각각 추려내었다. 둘째, 연구자들은 유형 분류가 완료된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유의미한 내용을 찾아 정리하였다. 이렇게 분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주제별로 소제목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자의 분석과 동시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분석을 뒷받침하였다. 셋째,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그들의 희망과 불안의 상태를 기술하는데 활용하였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도식화하였다. 넷째,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가 해석에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가진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을 받거나 추가적인 면담을 실시하였고, 분석한 내용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

### 예비교사 A의 내러티브

예비교사 A는 어릴 때부터 교사라는 직업에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지구과학이라는 교과에 매료되었고, 예비교사 A는 본격적으로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원하던 사범대 진학에 실패하고, 교과 성적에 맞춰 수도권 소재 환경학과에 진학하였다. 그렇게 그의 목표에서 멀어졌지만, 예비교사 A가 군대에 다녀온 후 자신의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또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에 도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겪었지만 자신의 노력과 간절함으로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진학에 성공했다. 그런데 합격이라는 기쁨은 잠깐이었고, 확고하게 목표설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새 학기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예비교사 A는 늦은 나이에 시작하여 새로 배우고 준비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매우 당황했다고 이야기한다.1)

원하지 않았던 학부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적성에 크게 반하지는 않았습니다. ... 그러나 군대에서 분대장을 하면서 ...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선임을 도와주었을 때 좋은 결과를** 보여 주자 교사에 대한 꿈이 다시 떠올랐고, 제대한 후 본격적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할 준비를 했습니다. (중략) 교육대학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부 전공을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 일치성이 있는지를 판정받는 과정이 매우 힘든 것을 직접 겪어보면서 느꼈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비교사 A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는 압박감과 졸업논문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중고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졌고, 그의 불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이런 이유로 예비교사 A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늦은 시작’이라는 말이 지속해서 등장한다. 예비교사 A는 또 교과 내용에 대한 어려움도 그를 힘들게 했지만, 그보다도 그에게 닥친 문제 해결에 대해 조언을 받을 사람이 없고, 학사 과정에 대한 정보 역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늦게 알게 된다는 것에 힘들었다고 토로하였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확산과 비대면 수업의 진행으로 더욱 심화되었고, 이후 대면 수업이 시행되고 난 후에도 지속되었다. 예비교사 A는 학과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학업은 본인의 노력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한다.

늦게 시작해서 시간은 없고, 할 과제는 엄청나게 많고. 또 복습할 것은 많고. ... 책 읽기에도 바쁘고 하다 보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 그 와중에 나를 수게 해줄 시간은 없지, **졸업하려면 논문도 써야 하지**, 아무튼 이런 게 쌓이다 보니 우울감은 계속해서 커졌죠. **옆에서 귀땀해 줄 친구들도 초반에는 전무했다는 점이** 어려웠어요. ... 학과에서 운영하는 **Band도 그 존재를 몰랐고**, 아무래도 타 대학에서 오는 교육대학원생은 정보 습득이나 ...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예비교사 B의 내러티브

예비교사 B는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Mentor & Mentee 관계를 맺고 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을 하였고, 이 경험을 통해 그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지구과학이란 교과는 그 내용이 각기 다른 영

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져 예비교사 B를 대표시켰다. 그러나 그의 희망과 달리 예비교사 B는 성적이 되지 않아 사범대학 진학에 실패하였고, 차선책으로 자연대학으로 진학하였다. 하지만 예비교사 B는 학부과정에서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고 있었던 본인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그는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렵게 다짐한 마음을 몰라주듯 진학하는 과정에서 그는 입학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기존 학부와 지구과학교육과의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학 거부를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 꿈은 **꼭 선생님**이었거든요. ... 그래서 ○○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를 가겠다고 담임 선생님께 늘 말했어요. ... 지구과학을 선택한 이유는 지구과학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였고, ... 내가 교사가 돼서도 학생들을 쉽게 공부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구과학을 선택했었고, (중략) 학생들한테는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제 자신은 꿈을 포기하고 있더라**고요. 언젠가 지구과학 교사를 도전 할거라면 최대한 빨리 도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사범대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 교육대학원에 입학하고 자격증을 따려면 몇 학점 이상 되어야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비교사 B는 결국 입학시험에 합격하였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매우 기뻐하며 자신의 미래가 잘 될 것이라 기대를 안고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다고 회고한다. 그 후 좀처럼 그의 뜻대로 대학원 생활은 원활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며 그는 지속해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리라는 불안을 겪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특히 예비교사 B는 교직과정을 이수하며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동안 겪는 불안이 지금까지도 그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어서 인터뷰하면서 말을 흐리거나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다른 학생과 제 나이 차이가 조금 나고 제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절망감에 빠져서** 한동안 조금 어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27. 저는 26에서 시작해서 28까지 다니고 있는데, 나는 늦었다는 **패배감이 계속 들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 "졸업하기도 벅찬데 임용고시도 준비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오니까, 제 생각에는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았어요.

그가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에 진학했을 때 학부생들은 학과에서 마련한 독서실에서 약 4년간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와주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사범대학이 아닌 다른 단과대학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마치 상상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친근함이었다고 회고한다. 이런 이유로 예비교사 B는 그들끼리 견고하게 다져진 관계망에 합류할 수가 없었고 또한 그들로부터 교과 내용과 학교생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였다. 그리고 교과 내용에 대한 어려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졸업 등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자신에게 좌절감으로 다가왔고, 그가 가졌던 입학 초기의 기대와 방향성들과는 다르게 자신이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예비교사 B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졌다고 고백한다.

저는 좀 소속감이 떨어지는 분위기에서 지내는 거라서 한 6개월 동안은 **혼자 다닌 것 같아요.** (한술) 일단 ... 혼자 해결해야 된다! ... 밥 먹는 것도 혼자고,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중략) 제 자신이. ... **나는 뭐하는 거지?** 이런 게 너무 커서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있었고, ... 회복되었다가 그리고 그게 또 다시 절망에 빠져있고.

그러나 그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확고한 목표와 희망을 품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늘 생각하며 자신을 다잡으려 노력한다고 이야기한다. 힘들더라도 본인이 선택한 일기에 자신이 감당해야 하기에, 예비교사 B는 불안한 마음이 피어나도 미래를 꿈꾸며 오늘도 공부한다고 이야기한다.

### 교사 C의 내러티브

교사 C는 고등학생 때 지구과학이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고 원리를 알게 되는 교과라고 느껴져 지구과학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는 대학 진학 역시 교사 양성과정인 '지구과학교육과'로 진학하고 싶었으나, 성적이 되지 않아 자신이 희망한 진로를 포기하고 지구환경과학과로 진학했다. 교사 C는 학부과정에서 지구과학의 일부 영역에 해당하는 암석, 광물, 광상 등의 고체지구과학 영역만을 배웠고, 학부 교직과정을 통해 '환경'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사 C는 자신이 좋아하는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에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에 진학하였고, 결과적으로 그는 지구과학교사라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다.

지구과학은 그래도 조금은 제가 이해할 수 있고 원리도 습득 하면서 약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과목이라서 그중에서 지구과학을 제일 좋아했고, 아뵐든 이제 성적 상 사범대는 못갈 것 같고, 비슷한 이제 자연대 지구환경과학과에 진학을 했고.. 그런데 저는 천문학에 되게 흥미가 있었거든요.

교사 C 역시 학부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지구과학의 특정 영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에 두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본인 스스로 인격적인 본보기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가꾸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본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자신을 다독였다고 회고한다. 그는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이수하면서 교과 내용에 대한 어려움도 컸지만 묘하게 느껴지는 소외감을 견디는 것이 더 어려웠다고 고백하였다. 교사 C는 기존 구성원들과 서로 지식을 공유하며 같은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했지만, 그들은 쉽사리 빈자리를 내어주지 않았고 결국 의지할 곳은 그녀 자신뿐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정신적, 육체적 부담은 계속되었고 이를 해소하지 못하자 교사 C는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는 흔들림이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자신이 교단에 설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에 무작정 도피처를 찾았고, 그 결과 화학 계열의 연구소에 취직하였다. 그리고 그 도피처에서의 생활은 그의 진정한 희망과 목표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일단. 천문학, 대기과학 뭐 지구물리 하려면 수식적인 것, 물리적인 그런 개념, 학습요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그냥 부딪혀보자! ... 이 각오로 왔어요. 가장 컸던 두려움은 그 임용시험에 대한 두려움, ... 친구들 중에서 사범대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개들도 몇 년 하면서 임용이 안됐어요. (중략) 사범대에서 온 학생은 친밀도가 서로 있어요. 다 서로 친한데, ... 다들 인식이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 누구지?” 이런 느낌을 받았고, (중략) 좀 잘하는 학생끼리는 이미 스터디 그룹이 다 짜여있고, ... 나도 이제 모르는 거 투성인데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 이렇게 사심없이 알려주는 친구가 없다는 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중략) 아 “다른 데를 가야겠다.” 해서 ... 탄소개발 연구원 거기에 넣었는데 됐어요. ... “처음부터 꿈은 뭐였지?”, “내가 이걸 평생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 이 길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그를 다시 괴롭히기 시작했고, 이는 교사 C에게 심적인 부담감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존 구성원들에게 먼저 찾아가 적극적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노력했다고 회고한다.

더 해야죠 저는. 부족하니까. ... 그 당시에는 저도 힘들어하고 다시 그냥 마인드컨트롤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끝은 봐야하니까. (중략) 제가 가서 맨날 물어보니까 친해졌어요. ... 응원해주고 힘주는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해줬다면, “너도 할 수 있다. 도와줄 테니까 기초부터 열심히 꾸준히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많이 힘이 되었어요.

교사 C는 어려운 환경에 동화되었지만, 그 속에서 미약하게나마 회복한 자신감과 본인의 노력을 바탕으로 자신을 다독이며 결국 교사라는 목표점에 마침내 다가갈 수 있었다.

## 미래가 불안한 교육대학원생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에 진학한 대학원생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계획하고 진로를 결정했기 때문에(Ham, 2017) 일반 대학원생과는 달리 교사가 되고 싶다는 의지가 매우 크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도전과 관련하여 과거 학부과정과는 서로 다른 교과 내용, 교직과정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정보 제공자로서 멘토의 부족, 교사 임용시험과 졸업을 준비하기에 촉박한 시간, 재정적 지원과 타학교 출신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차별과 소외감 등 현실적 상황과 맞물려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예비교사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 그들의 내러티브를 탐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학부과정과 다른 전공으로의 도전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에 입학하면서 지구과학교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하고 주어

진 시간 내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이 교육대학원 교직 과정에 입한 후 그 시작과 더불어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들 때문에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자신들이 학부과정에서 배운 전공 내용과 범위가 지구과학 교과의 지극히 일부이고, 자신들의 현재 전공 지식으로 지구과학 교사 임용시험을 대비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들은 천문 영역과 대기 영역 등과 같이 학부과정에서 배우지 않았던 교과 내용을 보충해만 했고, 이 때문에 그들은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다. 또 이런 부담감은 그들이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졸업한 후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남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졸업을 위한 학위 논문 준비, 생활비 마련을 위한 조교 활동 등의 업무 때문에 교과 내용을 보충하는데 온전하게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역량에 대해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였다.

학부 때 배운 것과 실제 대학원에서 배우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 결국 새로이 시작해야 하는데, 엄청난 수의 청강, 교직수업, 대학원 수업. 그에 따라오는 엄청난 과제 분량 등등 이런 게 절 옥죄더라고요. 물론 제가 선택한 거지만 정말 버겁더라고요(웃음). ... 예상은 했지만 실제 부딪혀보니 더 엄청나더라고요. 마음은 급하지. **[예비교사 A]**

학부에서 배운 거는 거의 해당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냥 거의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 배울 것은 너무 많고, 해야 할 것은 너무 많고. (한숨) 그리고 ... 대학원 과정은 일단 학부과정을 뛰어넘는 과정이라서. 학부에 기초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듣다보니까 거의 못 따라갔습니다. **[예비교사 B]**

내용이 엄청? ... 중요한 요소도 모르겠고, 뭐 효과적인 공부 방법도 모르겠고. 때문에 약간 좀 의욕도 상실되고 사기도 저하되고, 내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다. ... 천문학, 대기과학도 재미있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 어떤 수식을 유도할 때 이해가 안가니까 너무 어렵고. 뭐 논문도 써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청강은 청강대로 들으러 가야되고 하나까. 좀 시간이 촉박했던 것 같아요. **[교사 C]**

연구 참여자들이 겪는 전공 지식에 대한 어려움은 지구과학이라는 교과의 특성과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의 교육과정에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지구과학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모여 구성된 융합과학으로서 지질학, 대기과학, 해양학, 천문학 등의 학문으로 구

성되어있다. 그리고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의 교육과정은 일반대학과는 달리 교과 교육론과 교직 이수를 위한 교육학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사범대학 출신이 아닌 일반대학 출신의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에 입학한 대학원생들은 학부과정에서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의 교육과정 중 한 영역만을 이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지구과학에 관련된 학부과정이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학부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으므로 물리학, 화학 등의 다른 과학영역에 비해 지구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원들에서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이러한 사실은 연구 참여자들이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때 학부 연관성 측면에서 입학 자격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에 진학한 후에도 광범위한 분량과 범위의 추가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연구 참여자 모두는 학부과정에서 자기 전공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들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에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에서 이를 보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고충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지구과학교사가 되겠다는 기대와 희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겪는 전공 불일치의 문제는 다른 학부생들과 비교하여 자신들이 교사 임용시험에 경쟁력이 없다고 위축되게 하였으며, 그들이 최초 가졌던 지구과학교사가 되겠다는 내적 동기를 저하했다(Brokovec, et al., 1983).

#### 등불이 되어줄 멘토를 원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그들의 내러티브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부족’이라는 심리적 감성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동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같이 공부하고 소통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동료들을 만날 수 없었다. 또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이 대부분이 현직 교사였고, 학부과정과 교육대학원 과정에서 이미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타인과 고립된 상황에서 자신이 가는 길이 진정 옳은지도 모르면서 자신만을 믿고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이수해야만 했다. 결국, 연구 참여자들은 타 대학, 타 학과 출신이기에 학부 학생들은 물론 교육대학원생들의 네트워크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주변을 걷도는 방랑자 같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그들의 소속에 대한 정체성은 혼란스러워



졌다. 이렇게 고민과 어려움이 쌓여가는 상황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의 곁에는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과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 줄 멘토는 없었다. 이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점점 떨어졌고 그들의 앞길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도 교사 C는 스스로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는 등 먼저 다가가 기존 구성원들의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했으며, 결과적으로 기존 구성원들의 네트워크에 동화되었다.

**질문할 사람이 없다는 거. 용기 내서 물어봤는데 무시당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웃음) ... 점점 외로움이 쌓이고, 소외감도 드는 것은 물론, 도저히 기회가 안 보이더라고요. ... 수업 조교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학생과 조교의 차이 때문인지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 나름대로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학생들의 행동이나 표정에서 드러나더라고요. [예비교사 A]**

일단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 친해지기가 어려워서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물어볼 사람은 없고, 교육대학원의 특성상 연구실이 1년 후에 정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심적으로 어려웠어요. [예비교사 B]

안 꺼주고, ... 스터디 그룹에 끼기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가가는 게. ... 그 사람들은 다 베이스가 있고 서로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나한테는 ... 얻어갈 게 없어 보이고, 정보도 없고 하니까 안 꺼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 들어왔어요. 스터디 그룹 같은 것을 만들어준다거나, 멘티, 멘토처럼 ... 그 과에 나온 학생과 연결시켜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초반에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같은 거를 좀 해주면 ... 다른 과에서 온 학생들이 좀 더 자리 잡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략) 제가 만들었어요. [교사 C]

학생들의 모임의 장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도 하며(Hwang, 2016), 교사의 꿈을 이루려는 이들이 서로의 도움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도 있다(Kim and Moon, 2004). 즉, 교사 C의 내러티브를 근거로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은 이수하는 교육대학원생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면 그들이 새롭게 진입해야 하는 네트워크에서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너무 늦지는 않았을까?

Ham(2017)은 시간적 원인, 경제적 원인, 투자 대비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 등이 교육대학원생의 갈등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늦은 출발’이라는 시간적 원인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지속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는 시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으며 그들에게 지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늦은 출발’이라는 요소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 있다는 부담감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서 연구 참여자들의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남자라면 군대 2년 다녀오고, 휴학 한번 없이 바로 사회에 진출할 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늦은 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합격의 기쁨은 잠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서른 전에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흑 다가오더라고요. [예비교사 A] 이미 교사를 하는 대학원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좀 초라해 보이는 느낌이고, ... 저 자체도 많이 늦었다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안이 계속 와요. ... 가족들은 뭐라 안 하는데 제가 좀 불안했어요. ... 부모님들의 정년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잖아요. ... 저는 임용고시가 합격 불합격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안이 많이 왔어요. [예비교사 B]

결과적으로 그들은 방황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여 더 자신을 보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지구과학교사가 되겠다는 목표와 희망이 흔들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 부모님의 재정적 지원은 언제까지...그리고 차별은?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공통으로 언급된 내용은 교사 임용시험과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졸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재정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그들은 부득이하게 부모님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런 상황이 미래를 위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주변 또래들과 본인을 비교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부담감과 자존감 하락을 느끼게 되었다.

돈을 받아다 쓰는 건데 이런 부분이 제게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또한, 교육대학원생은 기숙사를 살 수 없게 되어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최소한으로 지출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막혀버려 강제적으로 자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물론 집안 자체가 못살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너무나 갑작스럽게 큰돈이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지식 입장에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 연구 장학생 등록이 되면 장학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 동 대학원 출신들은 전액 지원이 가능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반액만 지원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차별을 느꼈죠. ... 같은 구성원인데 상심이 컸죠. 안 그래도 힘든데. **[예비교사 A]**

경제적인 요소가 제일 부담이 많이 됐어요. 과외도 했어요. 그거로 이렇게 용돈과 생활을 했어요. 밥값 아끼려고 매일 집에 가서 밥 먹고. 매일 이렇게 반찬, 밥, 국이랑 일주일에 한두 번씩. (웃음)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어요. 자주 오셔가지고, 챙겨다 주시고. **[교사 C]**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원생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Lee, 2015). 그들은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가와 가까이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으면 타지에서 생활하며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려고 노력할 경우 그들의 다른 목표를 대신 포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대학원생들은 일반대학원생과 달리 장학금이나 조교 활동과 같은 기회 등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학교의 재정지원에 대해 낮은 수치의 기대를 보이기도 한다(Cho and Kim, 2017). 예비교사 A의 내러티브에서 확인할 수 있듯,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대학원생은 교내 기숙사에 거주할 수 없고, 타 대학 및 타 학과 출신의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대학원생은 연구 장학생 제도에서도 자교 출신 교육대학원생과 차별을 경험하였다. 이는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감을 가중하고 업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정보의 부족으로부터 야기되는 방향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은 교육대학원 일반과정에 분리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대학원은 재학생 수가 소수인 교직과정 대학원생들보다 다수인 현직 교사들의 재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직과정 대학원생들은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학부과정에서 배우지 않았던 전공 교과를 중심으

로 교육과정이 구성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현직 교사들의 재교육을 위해 학부과정에서 배웠던 교과 내용을 배제하고 보다 심화되고 확장된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과정 측면에서 현직 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교직과정 대학원생들은 선수과목으로 지정된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 임용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과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학부과정의 강의를 추가로 청강해야만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과부하를 느끼게 되고, 그들의 두 업무 즉,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업무와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업무로 그들의 역량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좌절의 계기가 되었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 솔직히 소외감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교육대학원이 현직 교사의 재양성이라는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비교사에게 교원자격증을 발급하는 한 기관이기도 하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거든요. (중략)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학생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케어를 받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도움 되었던 부분은 수업보다는 같이 수업을 듣는 현직 교사 분들을 보고 스스로 깨달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비교사 A]**

학부를 거치지 않은 교육대학원생은 대학원 수업을 따라가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략)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수업은 임용을 준비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용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원 수업을 듣는디?”라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 (중략) **[예비교사 B]**

전공수업은 “너네는 이미 학부 때 해서 다 알지?” 현직 교사의 수업이고, 일단 지식 좀 기본 베이스가 깔려야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 뭔가 더 심화되고, 한 단계 앞서나갈 수 있는데 기본 베이스도 없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들으려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발표 수업만 하다 보니까 남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웠다고 해야 할까? **[교사 C]**

또한,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한 박자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비교사 A와 예비교사 B는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에 관련된 행정 정보를 전달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들은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행정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고, 학사 일정을 참조하여 행정 정보를 스스로 찾아 처리해야만 했다.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행정 정보를 얻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연구 참여자들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어 연구 참여자들은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결국, 연구 참여자들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중요한 행사 또는 특강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거나 좋은 기회를 빈번히 놓치게 되었다. 특히 예비교사 B는 제한된 인간관계와 정보의 부족 상황 속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황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대학원생들이 겪는 막막함과 시행 착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호소하였다.

특히 바라는 점은 교육대학원생이라는 신분에서 오는 정보의 접근이 어려움, 인간관계의 제한성이 세미나나 다른 기회들로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좀 열렸으면 합니다. **[예비교사 A]**

제가 찾은 부분이 한 70~80%이고, 물어본 게 한 20% 정도예요. 학기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찾아보는 것 밖에. 제대로 된 OT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OT하면 ... 이게 교원자격증만 딱 얻는 그런 것만 설명해 주시니까. 공통적인 OT 말고 학과 자체에서의 OT가 필요해요. **[예비교사 B]**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를 통해 그들의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에서 지구과학교사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어려움으로 다가온 원인 5가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이들의 어려움이 결국 본인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 현실과 이상을 비교함으로써 나타나는 자괴감으로 다가왔으며, 진로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고 불안이 성장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던 희망의 원천

연구 참여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결국 그들을 좌절시키고 지구과학교사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하여 그들이 지구과학교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으로 진화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어렵게 새로운 출발을 하였고, 어떤 난관이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를 헤쳐 나가리라 굳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구과학교사가 되겠다는 목표는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내내

흔들렸고 불안했다. 실제로 교사 C는 불안함으로 인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포기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연구소로 취업하기도 하였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가 되겠다는 희망과 기대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될 때 그들은 현실과 타협하고 그들이 꿈꿔왔던 미래를 포기한 채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연구 참여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불안에 대응하여 그들이 최초 지구과학교사가 되겠다는 이유 즉, 지구과학교사에 대한 희망이 더 그들의 마음속에 넓게 차지하고 있어서 연구 참여자들의 지구과학교사가 되고자 하는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연구 참여자들의 교사가 되겠다는 희망은 지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목표를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주었다. 예비교사 A는 지구과학교사가 되고 싶다는 자기 생각에는 거창한 이유가 없고 그저 지구과학교사가 되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구과학교사가 되었을 때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고,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예비교사 B는 자신이 학생의 입장에서 자신이 겪었던 길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그는 교육자이자 인생의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사 C 역시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이 비록 빛이 보이지 않았던 길이었지만 묵묵히 참고 스스로를 가꾼 결과 나아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붙을 때까지 이 한 몸 버쳐서 모든 것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예비교사 A]**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교사를 생각했던 것도 저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인성교육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어가지고, 더 이쪽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비교사 B]**

근데 제가 더 포기를 못 한 게 처음에 딱 시험을 봤는데, ... 말했듯이 다 교수님 수업시간에 다 들은 거예요. ... 좀 더 노력했으면 뭐라도 좀 더 썼을 텐데. 너무 후회해서 다음에 절대 후회할 행동을 하지 말자. 후회 없이 공부하자. 자꾸 닿을 듯 말 듯, 더 포기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교사 C]**

## 내러티브를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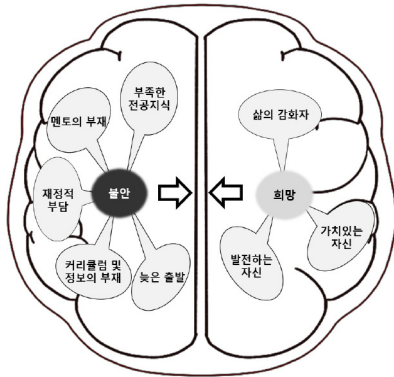


Fig. 1. psychological status of the participants be in conflict between hope and anxiety.

예비교사 A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웃는 본인을 상상하며 이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즉, 예비교사 A는 미래에 ‘가치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지구과학교사가 되겠다는 최초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예비교사 B는 미래에 자신이 좋아하는 지구과학을 공부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교과 외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생각하며 심리적인 불안을 극복하고 희망을 얻고자 했다. 즉, 예비교사 B의 목표 지속 동기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감화자(Yun, 2008)이자 더 나아가 ‘학생들의 삶의 감화자’가 되기 위함이다. 교사 C는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공부한 것만큼 지구과학 내용에 대한 개념들이 점차 익숙해지고, 그 결과 1차 합격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사 C는 처음에는 자신의 역량이 지구과학교사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인식하여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구과학교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즉, 교사 C의 목표 지속 동기는 ‘발전하는 자신’이다.

결과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심리적 불안도 커지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목표를 자가 발전시키고 자신을 다독이며 희망을 유지하였다(Fig. 1). 다만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불안과 희망이 동시에 그들의 사고에 내재되어 있어 괴로워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대학원에서 지구과학교육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한 3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희망에 대해 탐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구과학교사가 되리라는 ‘희망’과 이를 이루지 못하리란 ‘불안’은 연구 참여자들의 사고 속에서 지속해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겪는 어려움 즉, ‘지구과학교사가 되기 위한 전공 지식의 부족’, ‘등불이 되어줄 멘토의 부족’, ‘너무 늦게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 ‘재정적인 문제와 차별’, ‘방향을 야기하는 정보의 부족’ 등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은 연구 참여자 본인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속해서 하게 만든다. 다만 연구 참여자들의 사고 속에 불안의 세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지구과학교사가 되고자 하는 희망 세력도 형성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미래의 자기 자신 즉, ‘가치 있는 자신’, ‘학생 삶의 감화자로서 자신’, ‘스스로 발전하는 자신’ 등이 그들의 심리적 불안을 억제하고 희망을 지탱해주고 있다. 다만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서는 그들의 불안과 희망의 대립 관계가 점차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지쳐가고, 위축되고, 좌절하고, 불안을 이기지 못해 다른 경로로 이탈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의 진정한 목표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자신을 생각하며 ‘불안’과 끊임없이 맞서 지구과학교사가 되겠다는 ‘희망’을 무너트리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내러티브에서 한목소리로 흔들리고 있는 자신들에게 기댈 수 있는 나무가 있길 바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나침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그들은 대부분의 문제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닥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 시도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방향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결과는 교육

대학원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적절한 안내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먼저,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지구과학 교과는 지질학, 대기과학, 해양학, 천문학 등 이질적인 분야 등이 집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의 지구과학교육 학부과정의 교육과정은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은 현직 교사들의 재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대학원 지구과학교육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지구과학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대학원생들은 사범대학 학부과정에서 학습한 교과 내용 중 지극히 일부만을 학습하고 진학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들은 지구과학교사 또는 지구과학 교육전문가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육대학원은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교육대학원생들 역시 교육 수요자임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부족한 소양과 사범대학의 방향성에 합당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의 대학원생들은 일반적으로 타고 또는 타 학과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입학하게 된다. 이에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대학원생들은 기존 구성원들과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여 그들이 구성해 놓은 네트워크에 참여하기를 어려워한다. 이에 멘토와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나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교육대학원생들은 그들만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심리적 불안으로 좌절하고 상실하여 그들의 지구과학교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선택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심리적인 불안정함을 파악하고 해소할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사범대학 출신이 아니지만 지구과학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한 연구 참여자 3명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충분한 수의 연구 참여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님과 동시에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교육대학원생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후 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을 이수자들의 심리상담 및 지원

에 관한 연구,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사 사

본 논문은 연유상의 2022년 석사학위논문에서 발췌 정리하였음.

## 참고문헌

- Brokovec, T. D., Robinson, E., Pruzinsky, T., and DePree, J. A., 1983, Preliminary Exploration of Worry: Some Characteristics and Process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1(1), 9-16.
- Cho, K. B. and Kim, S. Y., 2017, A Study on Students' Difficulties Before and Throughout Physical Education Program a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1), 603-610. (in Korean)
- Chung, D. H., Lee, C. M., and Park, K. J., 2020, The Differences of Verbal Interactions according to Communication Structures and Communication Status in Small Group Activity of Earth Science Gift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41(3), 307-319. (in Korean)
- Ham, J. S., 2017, Exploration of Career Concerns and Conflict Factor in Dropping Ou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7), 621-640. (in Korean)
- Hwang, S. H., 2016, A Study on the Anxieties of the Applicants Preparing Physical Education Teacher's License and Their Devotion to Career Path.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5(4), 121-131. (in Korean)
- Kim, B. C., 2003,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Motivation and the Process of Liberal Arts Students' Teacher Training.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0(2), 23-53. (in Korean)
- Kim, J. H., 2009, Trends in the Social Advancement of Students at the College of Education in the Last Five Years.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18, 247-262. (in Korean)
- Kim, M. B. and Moon, S. T., 2004,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Internal-External Variables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17(1), 92-105. (in Korean)
- Kim, Y. K., Shin, S., and Lee, J. K., 2018, A Narrative Study on Career Conflict and Wandering of Pre-service Teachers in Biology Education Major. *Biology Education*, 46(1), 1-15. (in Korean)

- Kwon, S. M. and Cho, C. K., 2013, The Self-Narrative Inquiry on Student Teacher's Teaching Practice. *Teacher Education Research*, 52(1), 63-78. (in Korean)
- Lee, C. Y., 2004, A Critical Analysis of Korean Language Teacher's Education; A Study for the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9), 127-163. (in Korean)
- Lee, H. N. and Cheon, C. S., 2008, A Study on the alternatives of reform system on graduate school education. *International Business Education Review*, 5(2), 81-114. (in Korean)
- Lee, Y. J., 2015, A Study on the Use of Private Education for Secondary School Teacher Selection Test by Prospective English Teachers 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 Ang University, Seoul, Korea, 85 p. (in Korean)
- Park, E. and Kim, J. M., 2017, The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The Moderating Effect of Reassurance Seeking.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2(3), 669-685. (in Korean)
- Ryu, K. U., 2012, The Process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Preservice Teachers who have Withdrawn from Teaching as a Career.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8(2), 1-22. (in Korean)
- Yi, S. A., 2010,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Lived Experience of Prospective Teachers. *The Journal of Anthropology of Education*, 13(1), 95-129. (in Korean)
- Yu, E. J., 2009, Identity formation of preservice earth-science teachers who changed their major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306 p. (in Korean)
- Yun, H. S., 2008, Importance of Humane Interaction in Practice Teachers' Role.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13(2), 149-175. (in Korean)

---

Manuscript received: February 11, 2023

Revised manuscript received: February 28, 2023

Manuscript accepted: February 28, 2023